무주군 출신 선수들 동계체전 활약

황인홍 군수, 평창서 선수단 격려… 바이애슬론·스키·스노보드 선수 86명 출전

지난 18일 제106회 동계체육대회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바이애슬론(62명)을 비롯한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알파인(8명), 스노보드(16명) 종목의 무주군 출신 선수 86명이 출전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설원 위 메달 사냥에 나선 선수들은 19일까지 바이애슬론과 스키 알파인 종목에서 19개(금5, 은19, 동5)의 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1일까지 종목별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8개 종목 350명 출전)는 현재까지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20일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전북바이애슬론연맹과 전북스키협회, 도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선수단 격려에 나선 황인홍 무주군수는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단체전에서 무주 출신 고은정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한 낭보가 제106회 동계체육대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2만 3천여 무주군민 모두가 고향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으로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계체육대회 경험이 개인의 실력을 키우고 무주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북돋우기를 바란다"라며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메달 총 62개로 4위를 차지한 가운데 무주군 출신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선수들이 금 11개, 은 15개, 동 17개 총 4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전북바이애슬론연맹과 전북스키협회, 도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제106회 동계체육대회 선수단 격려에 나섰다.

올해 2월 초에 개최됐던 제9회 중국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도 무주군 출신 바이애슬론 및 스키 종목 선수 6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고은정 선수는 바이애슬론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동계체육 강군 무주의 위상을 높였다.

선수들 전지훈련과 장비 지원 등 동계체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도 4억 6천여 만 원을 투입해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을 비롯한 동계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진안군,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갖고 대상 사업 논의

진안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태세에 돌입했다.

주영환 부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 날 보고회에는 국·소 및 실·과·소장 등 24명이 참석해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대상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의 2026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규모는 총44건에 총사업비 2,560억원(국비 1,487억원)이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2027년도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용담호 자원을 활용한 △용담호 에코토피아(460억원), △용담호 에코 감성관광 벨트 구축(301억원), △웅치전적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300억원)을 비롯해 관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연장농공단지·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대형 사업에 대해 주요하게 다뤄졌다.

군은 원활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반드시 상반기 중 사전절차를 이행을 완료하고, 국·소장 책임제를 실시해 사업 추가 발굴과 면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주영환 부군수는 "진안군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주길 바라며 관계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장수군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에서 24세(2000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신청해 두면 24세까지 지속해서 제공된다. 또한 올해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3,000원에서 14,000원(연간 최대 16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청춘 치매예방교실' 호응

경로당 찾아가는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초고령 지역 현실을 고려한 무주군 '청춘 치매예방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청춘 치매예방교실은 직접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경로당 총 30곳에서 3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1곳당 운영 횟수는 기존보다 5회 늘린 총 12회로, 현재 10곳에서 사전·사후검사와 인지 자극 활동에 해당하는 치매예방체조, 인지 활동지 만들기 등을 진행 중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선지숙 팀장은 "우리 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38% 정도로 치매 예방 관심도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찾기 힘든 어르신들을 찾아가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직접 활동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어르신 맞춤형 인지자극 활동으로 실질적인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전환 제안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장수,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광훈 의원은 "장수군은 청년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청년 정착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정책과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청년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청년정책 전환의 내용으로 △청년정책과 신설을 통한 장수군의 청년정책 의지 표명 △청년정책 통합 관리 및 아이디어 발굴 등 체계적 추진 △청년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및 성과 모니터링 실시 △청년활력센터를 행정과 청년의 소통창구로 발전 등을 제안했다.

김광훈 의원은 "청년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 정책 도입과 관점 전환은 장수군의 최우선 과제"라며 "청년이 찾아오는 장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승수 전 전주시장, 장수서 '다(多)가치 배움의 날' 특강

장수군이 20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25년 2월 '다(多)가치 배움의 날' 특강을 개최했다.

최훈식 군수와 공직자,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초청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관점과 안목'을 주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북 정무부지사, 제38대~39대 전주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날 특강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장수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특강을 통해 혁신적 사고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전 시장은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관점'과 '안목'에 있다"며 "변화의 출발점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장수군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장수다움'을 찾고 사회적 연대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접수

진안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한 사업 분야는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산림, △식품 등 총 214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이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농산촌미래국(농업정책과 등) 등 관련 부서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조건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오는 3월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 예산을 신청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5일까지 접수

진안군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까지이며, 기존에 1차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자동 연장된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진안군청 농촌활력과로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